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④

눈(肉眼)으로 보는 것을 시(視)라 한다면 마음(心眼)으로 보는 것을 관(觀)이라 한다. 불교는 보는 세계보다는 '관(觀)하는 세계'에 중점을 둔다. 보는 세계는 외부의 세계요, 관하는 세계는 내부, 즉 주관(主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의식중에 있는 세계요, 생각하는 세계다.

해능스님 사상의 진수(眞髓)가 육조단경이라고 한다면 '마하반야바라밀법(摩訶般若波羅蜜法)'은 그의 심지(心地)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삼십삼이여! 마하반야바라밀이 가장 높고 최상이며 으뜸이니 머무름(住)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한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 좇아 나오셨

一如)와 재가불교 대중화 운동의 시시적 법문을 하시고 있다. 마음을 닦아 마치면 이곳이 곧 극락이지만 십선(十善)을 행하지 않으면 서방정토에 나가지 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본문 내용에서 '승속간(僧俗間)에 흔히 아마타불을 칭(稱)하여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는데, 과연 그곳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이 의심을 풀어주소서'라는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하근기의 사람에게서 먼 길을 말하고 상근기의 사람에게서 가까운 법을 말하게 되는데,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것은 하근기의 사람이 하는 법이고, 상근기의 사람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부처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근기는 곧 10악사(十惡八邪)를 끊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

마음밖서 부처를 찾지 말라

본심 알면 번뇌망상·생사 없어 해탈

느니라." (善知識 摩訶般若波羅蜜 最尊最上最第一 無住無往 亦無來 三世諸佛 皆從中出)

이 마하반야바라밀법은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을 여실히 밝힌 법문이다. 선가(禪家)의 다시 없는 심지(心地) 법문으로써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마음의 지혜를 성취하면 번뇌망상 속에 부처가 있고, 시장 한복판에서 온갖 시비분별을 하더라도 보리반야(菩提般若)가 밝게 빛난다. 만일 마음이 미해 깨치지 못했다면 아무리 깊은 산 조용한 굴 속에 숨는다 해도 번뇌망상이 죽을듯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 관조(觀照)하면 안팎이 하나로 밝게 드러나서 제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고 보면 번뇌도 망상도 없고 생도 사도 없고 육체도 생각도 없어서 누가 괴로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 이것이 개인(開眼)이고 열반 해탈이며 반야삼매(般若三昧)의 성취이며 무념(無念)이다. 무념법을 깨달아야 부처님의 지위 이룬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해능스님은 자성미타(自性彌陀)를 역설한 정토관(淨土觀)의 선정일어(禪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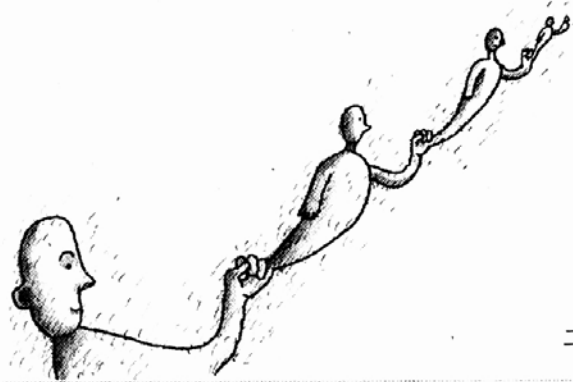
여 성품을 보아 성불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이 곧 부처님 국토가 창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고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현상으로 보는 것은 현상계(現象界)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성(自性)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타불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극락세계가 서방에만 별도로 있을 수 없으며, 극락세계 아닌 데가 없고 이미타불 아닌 사람이 없다.

해능스님은 후학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자성진불제(自性眞佛)를 남서 스스로 구하도록 가르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임종계(臨終)를 설하고 사도 단정히 앉아 그날 밤 삼경에 전화(轉化)하셨다. 육조단경은 이 때의 광경을 "신비로운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니 개인(開眼)이고 열반 해탈이며 반야삼매(般若三昧)의 성취이며 무념(無念)이다. 무념법을 깨달아야 부처님의 지위 이룬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해능스님은 자성미타(自性彌陀)를 역설한 정토관(淨土觀)의 선정일어(禪定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전체와 부분은 항상 대화

불교와 과학 <7>

일상성 - 2

어느 숲 속에 일개미들이 모여 사는 두렁이 있다. 그런데 일개미들의 두렁 안에는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개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도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일본 생태학자가 8년 전에 발표한 것을 이야기 해 보자. 그 생태학자는 파일리트 실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규모 표본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미 군집의 생태적 연대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소외의 상황은 서구사회에서 먼저 그 위기감으로 표출되었다. 당연히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서구에서 먼저 일어났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서구사

회의 대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화연의 인드라망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이었다. 그래서 과학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드라망은 서구인에게는 하나의 신비로운 그 무엇이였다. 그러나 인드라망은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재된 일상성의 세계임을 확인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역시 그 일상성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으며, 특별한 기도나 영성 혹은 신비한 주술을 통해서 그 인드라망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말에 '일개미'라는 말이 있다. 일개미라는 말은 몹의 작은 한 부분이 다쳤을 때 온 몸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일개미의 어원은 '온 살'이며, 몸살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경전에서 '올'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음을 예시한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져, 내 사랑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 존재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아프리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나와 만나고 내가 너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인드라망의 한 부분임을 느끼는 일이다.

나 하나의 존재는 실은 전체의 그 물망 속의 한 매듭일 뿐이다. 그 매듭은 삶 속의 작은 재비의 실현을 통해서 거대한 우주적 삶과 만나면서, 전체 그물망을 하나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억지로 만들거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을 찾는 일임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 최중덕/상지대 교수 (jchok@chiak.sangji.ac.kr)

꽃 직접 심고 가꾸며 바른 마음·행동 배워요

지구촌 불교 / 팔정도 정원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 굴치(Green Gulch)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물으면, 아이들이 먼저 지목하는 곳은 '팔정도 정원(Eightfold Garden)' 일 것이다.

(트라이시틀) 최근호를 보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수에히코 오노(Suehiko Ono·23) 씨가 만들고 있는 이 정원에, 지난 5월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학교에서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냥 놀기보다는 꽃을 심고 가꾸는 데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힐의 (비밀의 화원)(1577년)과 같은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 굴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의 평범한 공터였죠. 그래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어린이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았더니 '팔정도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 팔정도 정원을 가꾸는 아이들.

美 캘리포니아 동심 밝히는 정원 화제

"아프리카 굶는 친구 돕자" 콩 키워

월 켈라는 파빈(12)은 "이 곳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노 아저씨의 말처럼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배움)가 있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 곳을 찾는 아이들은, 팔정도(八正道)라는 것이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진지(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등을 말하고, 또 이것들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원의 이름인 '팔정도'에는 올바른 마음, 행동, 말, 생각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노 씨가 아이들에게 꽃의 의미로 팔정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탓이다.

팔정도 정원에서 노박덩굴의 진실함, 데이지의 겸손함, 스타티스의 열정, 아마릴리스의 수줍음, 시네라리아의 명랑함, 제라늄의 결실, 해바라기의 굳은 믿음을 등이 피어나고 있는 것도, 팔정도의 가르침과 유사한 '꽃말'을 가진 꽃을 심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은 '콩'이다. 정원에 무슨 '콩'을 심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콩'을 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콩이 콩과와 맞붙은 이웃집 담장을 휘감으며 자라는 동안, 그런 콩이 지역의 아이들의 마음에 나와 타인을 똑같이 여기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트라이시틀) 지에 '팔정도 정원'을 기고한 웬디 존슨(명사) 씨는 "오노(Ono) 씨의 정원이 아이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정원요, 그런 굴치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명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중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6-4422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0년 11·12월호

제17호

불교특강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인구 율이론 무엇인가에 대한 최봉수(동국대 사외교육원) 선생의 정화하고도 확실한 설명. 불교의 중에서 인구 율이론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5 선정(禪定) · 6 반야(般若)

육바라밀 중에서 선정과 반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화두선에서의 선정 · 반야(해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 비파사나를 통해 본 선정 · 반야(원담 스님/송광사 신원)

■ 연재를 마치며 / 이 시대 진정한 육바라밀은 무엇인가 (김호성/동국대 교수)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5

- 위당(威堂) 선현(申權, 1810 ~ 1884)이 쓴 서울 화계사 '보화루(寶華樓)'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11 이호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림의 숨결 - 김진 착상안 제작사

컬러화보 12 사진으로 보는 가림의 어제와 오늘 - 선운사와 쌍봉사의 주요 전각들의 신규 사진을 통해 살펴본다

포커스/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상진과 불교

- 국내 미발표된 그의 불교적 작품, '명산(靈山)'을 소개한다

좋은 책 읽기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페이 초드론 스님의 책 읽기(진우기/KBS, 불교문화센터 강사) - "하늘이 무너질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불교가 주는 마음의 조안"을 통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결법을 말하고 있다.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5

- 신라 진평왕과 왜의 백제인 스이코 여왕(하) 신라 진평왕대에 동양에서 최초로 여왕이 오른 일본의 백제사람 스이코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라불교와 문화의 만남

중국 속의 한국불교 /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미지마촌)

- 강서성의 선종관련 한국사찰 탐사 2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들 찾아서 (문학관)

11 經과 불교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율하 김달진 선생

12 釋을 노래한 정복과 시인, 조자훈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